

魏源의 經世思想和 經世策에 대한 一考

成 惠 英

I. 序 言

II. 魏源의 經世思想

1. 魏源思想의 實用的 性格과 經世 致用
2. 傳統思想의 再評價와 折衷

III. 幕友로서의 魏源과 經世策의 展開

1. 漕運・鹽政・水利를 中心으로 한 經世策의 검토
2. 幕友의 기능과 經世策의 限界

IV. 結 語

I. 序 言

魏源(1794—1857)의 時代는 中國의 전통적인 질서가 對內外的으로 위협 당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變化가 불가피하였던 위기의 시대였다. 즉 白蓮 教徒의 亂을 비롯한 각종 爭亂과 阿片戰爭, 太平天國 등의 一連의 大事件 들이 말해 주듯이 그의 時代는 여러 형태로 전통사회 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에 직면하여 일부 士大夫들은 嘉慶年間으로부터 전 통적 질서의 재건을 위한 여러가지 內政改革을 시도하는 한편, 學術과 思想의 측면에서 既存 學風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학문의 현실적 기능에 대 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에 공통된 정신이 있다면 그 것은 '經世'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魏源은 이 시기에 對內外的인 時勢에 따른 變化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變化를 주도한 代表的인 經世家였다. 예를 들면 그는 江南의 內政改革에서 漕運·水利·鹽政 등에 관한 실무 행정가로서 활약하였고 『聖武記』와 『海國圖志』 등의 저술을 통하여 부국강병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서구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自強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龔自珍과 쌍벽을 이루는 今文·公羊學者이기도 하였다. 中國史에 있어서의 그의 위치는 곧 19세기의 주요 흐름들의 合流點에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였다.¹⁾

그리하여 魏源은 歷史學者들에 의하여 19세기의 代表的인 經世家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측면으로 꾸준히 주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中國近代化의 序幕을 열고 있는 洋務·變法運動의 맥락속에서 그의 師夷論 및 公羊學 思想의 역할과 그 근대적 의의가 부각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우선 그의 代表的인 저술인 『海國圖志』에 나타나 있는 海防論 및 師夷論 등은 洋務論의 萌芽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朝鮮과 日本의 開化思想에 미친 영향으로서도 입증된다고 하겠다. 또한 그의 經世致用的 학문과 政治的 思惟는 清末 公羊學派 形成의 단서를 마련한 變法論의 초기단계로서 평가되었던 것이다.²⁾ 요컨대 魏源의 思想 및 역할은 中國의 近代化와 관련하여 그 進歩性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1)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0): *Late Ch'ing 1800~1911*, Part I (Cambridge Univ. Press, 1978), pp. 148~154.

2) 梁啟超는 魏源에 대하여 '經世致用的 今文學者'로서, 또한 世界地理의 지식을 전파한 인물로서 주목하였다. (『清代學術概論』, 臺北, 1981, pp. 55~56; 『中國近三百年學術史』, 臺北, 1977, pp. 323~324). 이밖에 대부분의 魏源研究는 今文·公羊學思想을 기초로 한 進歩的 思想家로서의 魏源에 대한 것과 『海國圖志』와 관련하여 洋務論者로서의 魏源에 대한 것으로 大別할 수 있다. 前者의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野村浩一, 「清末公羊學派의 形成と康有爲學의 歷史的意義」(『近代中國의 政治와 思想』, 東京, 1964)와 吳澤, 「魏源的變易思想和 歷史進化觀點」(『歷史研究』, 1962年 第5期) 등이 있고, 주로 後者에 관계되는 것은 王家儉, 『魏源對西方的認識及其海防思想』(臺北, 1965); 北山康夫, 「海國圖志とその時代」(『大阪大學紀要』, 3號, 1957); 藤間生大, 「1840年代の中國における思想變革の方向」I・II (『歷史學研究』, 385~388號, 1972) 등을 들 수 있다.

수 있다.

그러나 魏源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만으로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려는 過渡期의 첫 단계에 있는 中國社會에 있어서의 魏源의 역할과 의의를 정확하게 조명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이들 既存 研究들의 한계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魏源의 思想 및 역할의 近代的 의의를 부각시킨 반면 限界와 그 이유들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魏源의 思想과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 阿片戰爭과 같은 서구의 충격을 지나치게 큰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³⁾ 즉 이들 연구들의 이면에는 '經世'와 관련하여 魏源의 思想과 改革案에 內在한 傳統的 맥락을 소홀히 하여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洋務·變法運動 등 後期 改革運動의 명가로부터 회고하여 魏源의 歷史의 위치를 고정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일차적으로는 變化가 막 시작되려는 19세기 전반기의 中國社會에 대하여 서구의 충격과 그에 대응한 선구적 士大夫의 近代指向의 모습이라는 도식적인 이해를 지양하고자 한다. 그것은 中國의 近代社會로의 變質을 傳統的 內在인 발전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外勢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또는 外勢를 의식하지 못하였던——阿片戰爭 前의 서구 문명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魏源의 思想 및 改革案을 中心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힘으로써 魏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經世家로서의 魏源을 가능케 하였던 思想的 背景을 論할 것이다. 魏源의 思想 가운데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實用的 性格과 經世致用的 精神

3) 예를 들면 魏源의 主要 著作인 『海國圖志』와 『聖武記』를 각각 阿片戰爭에 대한 '知的 反應'·'感情的 反應'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Peter M. Mitchell, "The Limits of Reformism: Wei Yuan's Reaction to Western Intrusion," *Modern Asian Studies*, 6·2, 1972, p. 139 參照. 그러나 『聖武記』는 魏源이 內閣中書로 있던 1829년에 人心의 振作을 위해 清代의 武功을 서술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阿片戰爭이 직접적인 저술의 동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魏源, '聖武記序' 參照.

이 經世思想의 특징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既存學風에 대한 反省과 經典의 이해 등을 통하여 그 점을 살필 수가 있다. 또한 ‘變’의 개념에 입각한 歷史認識은 그의 思想을 더욱 유연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傳統思想에 대한 再評價와 折衷 속에서 經世思想을 확충시키고 있음이 주목된다. 제 1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中心으로 魏源의 經世思想의 의의와 한계를 전통과의 맥락 속에서 살펴 나갈 것이다.

魏源의 經世家로서의 특징이 “不求其所以然 而求其可以行” 즉, 실천성에 있다”고 지적되는만큼 위와 같은 經世思想은 그의 현실적 활동과 더불어 살펴져야 할 것이다. 魏源의 時代에 있어서 漕運·鹽政·水利 등은 모두 전통질서 內에서는 財政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써 清代 社會의 부패와 쇠락의 징후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의 經世活動은 이처럼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魏源의 대응방법은 後期の 對內·對外的인 二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으로서도 주목될 수 있다. 따라서 제 2장에서는 먼저 江南 內政改革의 일환으로 강구되었던 漕運·鹽政·水利 등에 관한 改革案을 中心으로 魏源의 經世策의 대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현실대응책을 살펴 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 1장에서 살펴 본 經世思想의 의의와 限界를 염두에 둘 것이며 또한 그의 經世策의 성격을 결정하는 어떠한 思想外的인 要因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幕友로서의 魏源과 그의 經世策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위의 점들을 밝혀 나가하고자 한다.

傳統文化의 대표자이자 동시에 改革運動의 선구자였던 魏源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은 우리에게 19세기 전반기에 있어서의 諸改革意志의 형성 및 그 의의와 한계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魏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清末 改革思想과 運動에 대

4) 王家儉, 『魏源年譜』(臺北,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68), p. 172.

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Ⅱ. 魏源의 經世思想

1. 魏源思想의 實用的 性格과 經世致用

19세기 특히 魏源의 時代에 있어서의 學術·思想界는 ‘經世’라는 공통의 名分 위에 전반적으로 方向調整을 행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乾隆末年으로부터 嘉慶·道光帝에 이르는 동안의 사회적 불안, 곧 부패와 각종 內亂, 外勢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제기되기 시작한 學問의 無用論을 극복하려는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그것은 위기의 시대를 맞아 현실적인 입장에서 ‘學問을 위한 學問’, ‘學問絕對不問政治’에 대한 反省이 불가피하였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⁵⁾

清代의 學術과 思想은 대체로 漢學과 宋學 系列로 兩分할 수 있다. 漢學은 宋·明 理學의 직관적 지식과 思辨哲學에 대한 反動으로 시작되어 實事求是의 實證的 태도로 考證을 중요시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清代 學術 및 思想界의 主流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淸初의 顧炎武·黃宗羲 등 實學者들에 의하여 창도되었던 經世致用的 정신이 점차 考證이라는 학문적 방법론에 종속되어 그 본래의 적극적 성격을 잃어 가고 있었다. 즉 考證中心의 漢學은 義理와 道統의 주관적 관념론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으나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는 非政治性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⁶⁾

清代의 學術 및 思想界가 거의 漢學 中心으로 통일되어 있었지만 다른

5) 梁啓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p. 25.

6) 清代 考證學에 있어서의 ‘非政治性’이란 곧 政治에 대한 輕視, 또는 無關心에 가장다고 할 수 있다. 野村浩一, 『近代中國の政治と思想』(東京, 1964), pp. 12~15 參照.

한편으로 程朱·陸王을 제승한 理學家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宋學은 주로 政事에 參與하고 있던 朝廷 儒臣들에 의하여 그 계보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漢學에 비해 政治性이 강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政治의 性格이란 곧 官學으로서 과거의 도구 및 지배윤리를 뜻하는 것이었을 뿐 실천적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嘉慶年間に 들어서면서 그전까지 學術界에서는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宋學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곧 사회적 혼란기를 맞아 학문의 無用論이 제기되어, 학문의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었던 시대적 상황에 편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經世學의 요청은 기존 학풍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桐城派의 方東樹는 그의 『漢學商兌』를 통하여 考證學(즉 漢學)이 ‘實事求是’⁷⁾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고 하여도 修己治人의 입장에서 보면 헛된 것이라고 공격하였다.⁸⁾ 또한 章學誠도 漢學이 玄學의 弊는 적으나 支離·煩瑣의 폐가 있어서 人倫과 日用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⁹⁾

魏源的 既存學風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이들과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곧 그는 漢學이 ‘修己治人’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를 自問하는 것

7) 考證學의 ‘實事求是’는 주로 實學의 學問的 對象과 方法을 의미하는 고전적 의미의 實事求是이다. 곧 ‘從書上’의 ‘求是’의 뜻에 가깝다. 이는 實學의 近代的 變質이라 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實學’, 즉 ‘從事上’의 ‘求是’의 뜻이 강한 ‘新實事求是’와 구별된다. 全海宗, 「實學概念의 史的 考察—清代實學과 李朝 後期實學의 比較小論—」(『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17, 서울, 1978) 參照.

8) 錢穆, 『中國近三百年學術史』(臺北, 1977), pp. 517~521. 梁啟超는 方東樹의 『漢學商兌』에 대하여 考證學의 전성시대에 正統派의 漢學에 대항하고 나선 정신은 훌륭하지만 추상적이고 인습적이라고 평하였다. (『清代學術概論』, pp. 48~50). 또한 侯外廬는 이것이 비록 漢學의 단점을 들어 설명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宋學이 내세우는 名分인 ‘義理’ 또한 모호하다 하여 學術思想界의 反動이라 혹평하였다. (『中國早期啓蒙思想史』, 北京, 1958, pp. 685~689). 이 『漢學商兌』의 出現은 漢·宋學 論爭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漢學의 입장은 江藩의 『國朝漢學師承記』에 잘 대변되어 있다.

9) 黃公偉, 『宋明清理學體系論史』(臺北, 1972), pp. 563~564.

으로부터 비판의 실마리를 풀고 있다.¹⁰⁾ 그리하여 全盛期の 漢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自乾隆中葉後 海內士大夫興漢學 而大江南北尤盛 蘇州惠氏·江氏, 常州戴氏·孫氏, 嘉定錢氏, 金壇段氏, 高郵王氏, 徽州戴氏·程氏, 爭治訓詁音聲 爪剖鉅析…錮天下德明智慧使盡出于無用之一途¹¹⁾

곧, 惠棟·戴震 등 大漢學者들이 訓詁·音聲의 지엽적인 것의 연구에 치중하였는데 魏源은 이를 天下의 지혜를 無用한 데 낭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그가 學問을 論함에 있어서

以訓詁音聲蔽小學 以名物器服蔽三體 以象數蔽易 以鳥獸草木蔽詩 畢生治經 無一言益己 無一事可驗諸治者乎…如國家何¹²⁾

라 하고 있듯이 訓詁音聲·名物器服·象數·鳥獸草木 등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이 小學·三體·易·詩 등의 기본정신을 가려(蔽) 평생 經을 연구하여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政治에도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었다. 이것은 곧 清代 學術의 主流를 이루었던 漢學의 學風, 다시 말해서 方法論的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던 전반적인 학문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¹³⁾

10) 劉逢祿 등 常州學派의 系譜를 잇고 있는 魏源은 漢學家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漢學에 대한 비판은 宋學者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곧 修己治人에 대한 反省으로부터 漢學의 無用性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漢學 자체 內의 方向轉換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1) 「武進李申耆先生傳」, 『魏源集』(臺北, 1979), pp. 358~359. 本稿에서 인용하는 一次史料는 대부분 楊家駱主編, 中國學術類編『魏源集』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魏源集』을 생략하고 페이지만 명기하겠으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史料는 特記하기로 한다.

12) 「默觚」上, 學篇 9, p. 24.

13) 梁啟超도 이 점과 관련하여 “清代學派의 運動은 ‘研究法的運動’이지 ‘主義的運動’이 아니다”라고 하여 清代 學術이 이데올로기를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清代學術概論』, p. 31).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더욱 주목되는 까닭은 그의 관심이 학문자체의 문제보다는 ‘如國家何’라는 사회·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곧 당시 漢學의 成果들은 비현실적 지식의 나열이었을 뿐 혼란기에 政府가 당면한 긴급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亂世에 있어서 魏源의 관심은 ‘修己’보다는 ‘治人’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었다.¹⁴⁾

그러면 魏源이 생각한 ‘治人’의 기준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가 『詩』를 인용하여 民의 ‘實’은 ‘日用飲食¹⁵⁾’이라 하여 소박한 民本主義 思想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곧 政治도 民의 日用飲食이라는 현실생활을 中心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古來의 政治的理想인 ‘王道’에 대해서도

自古有不王道之富強 無不富強之王道…無非以足食足兵爲天下之具¹⁶⁾

라 하여 富強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곧 王道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서는 그것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富強, 즉 食·兵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여 富·強의 윤리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다.¹⁷⁾

魏源의 學問觀에 위와 같은 政治觀이 반영되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魏源이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 空理空論이란 ‘空疏不學’과 같은 明末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空疏無用’의 뜻이 될 것이었다. 곧 학문의 대상이나 그 成果는 致用의 근거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魏源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학문자체의 현학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論해져야 하였다.

14) ‘修己治人’의 儒家的 本領은 時代 環境에 따라 그 根本意義의 강조되는 면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예를 들면 程朱學派에서는 ‘修己’에 치중하였고 明末清初에는 ‘治人’이 고창되었던 것이다. 全海宗, 「實學의 義意에 대하여」(『韓中關係史研究』, 서울, 1970) 參照.

15) 「默觚」下, 治篇 1, pp. 36~37.

16) 同上.

17) Peter M. Mitchell, *op. cit.*, pp. 179~180.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당시 士大夫들의 현학적인 학문적 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工蠶墨之士 以農桑爲俗務 而不知俗學之病人更甚於俗吏 託玄虛之理 以政事爲粗才 而不知腐儒之無用亦同于異端 彼錢穀簿書不可言學問矣 浮藻餽餉可爲聖學乎 釋老不可治天下國家矣 心性迂談可治天下乎¹⁸⁾

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農桑·政事·錢穀簿書 등 여느 士大夫들이 배척하던 實務에서 오히려 학문의 적극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곧 詩文이나 書畫단에 능한 선비나 玄虛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핑계로 宋學末流의 超脫主義에 젖어 있는 학자들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학문은 각기 지향하는 바들이 달라 보여도 現實放棄라는 점에서는 같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魏源이 비판하였던 것은 특정의 학파나 사상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되어 있던 당시의 전반적인 학문의 풍토였다. 그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현실적 가치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어야 하였던 것이다.

魏源의 학문적 태도에 보이는 위와 같은 實用的 性格은 經書에 대해서도 보다 實用的인 각도에서 연구에 임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곧 그는 經義 자체에 대해서 보다는 그것을 현실생활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經書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기본적으로 經을 통하여 現實事에 대처하는 道를 구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어 經과 治를 不可分の 관계로 파악하고 道·治·經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曷謂道之器 曰禮樂 曷謂道之斷 曰兵刑 曷謂道之資 曰食貨 道形諸事謂之治 以其事筆之方策 俾天下後世得以求道而制事 謂之經…則能以周易決疑 以洪範占變 以春秋斷事 以禮樂服制興教化 以周官致太平 以禹貢行河 以三百五篇當諫書 以出使專對 謂之以經術爲治術¹⁹⁾

18) 「默觚」下, 治篇 1, pp. 36~37.

19) 「默觚」上, 學篇 9, pp. 23~24.

곧 그는 治亂 道の 具現이라고 보았으며, 道는 禮樂·兵刑·食貨 등에 의하여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春秋·詩經 등의 經典은 治를 위한 方策을 제시해 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魏源의 經典觀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經이 治의 개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經術이 곧 治術이라는 뜻이었다.²⁰⁾

魏源의 經典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經典의 實用的 가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治經’ 자체보다는 ‘治世’에, ‘解經’보다는 ‘用經’에 중점이 두어지는²¹⁾ 通經致用的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그는 經術로써 政事を 論하는 19 세기의 經世致用的 단서를 마련한 인물로서 주목될 수 있었다²²⁾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魏源의 經典에 대한 이해는 清代 儒學의 歷史를 회고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곧 經書에 대한 文獻學的 考證에 집중된 이른바 經書에의 속박²³⁾으로부터 해방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였던 것은 종래의 학자들이 經典을 비역사적으로 인

20) 經의 내용이 治術의 기본정신이 되어왔던 것은 中國의 전통이었다. 이는 時空의으로 代案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Peter M. Mitchell, *op. cit.*, p. 182.

21) 魏源의 經學은 ‘治經’·‘解經’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陳耀南, 「魏源與經世致用的今文經學」(『魏源研究』, 香港, 1979), pp. 46~49 參照.

22)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pp. 55~56.

23) 明末의 觀念論을 극복한 清代 考證學의 實證의 태도가 종종 近代 유럽의 과학정신에 비견되나 近代 科學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로 바로 이 經書에의 속박이라는 점을 든다. 즉 清代考證學의 成果는 經書의 가치확인에 급급하여 그 事實(facts)의 나열에 그쳤을 뿐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정신을 수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Joseph R. Levenson,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Univ. of California Press, 1965, pp. 6~9 參照.

野村浩一도 이 점과 관련하여 “考證學은 儒敎의 傳統에서 一步라도 벗어난 것이 아니라 反對로 유교의 正統性的 確證에 기여한 것이었다”고 하고, “考證學의 哲學이 무엇인가 하는 設問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여 그 限界를 설명하였다. 野村浩一, 前掲書, pp. 15~16. 또한 註 13)을 참조하라.

식하여 그 가치확인에 급급하였던 데에 反하여 魏源은 다음 節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經典을 투철한 歷史認識과 現實認識 위에서 對象化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볼 때 魏源의 既存學風에 대한 반성과 經典의 이해 등을 통하여 살펴 본 魏源 思想의 實用的 性格 및 經世致用的 精神은 『皇朝經世文編』의 편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있다. 곧, “道存乎寔用”²⁴⁾이라는 기치 아래 『皇朝經世文編』의 편찬에 임한 魏源은 事와 心, 法과 人, 今과 古, 物과 我 등에 대한 고찰 속에 그의 思想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였다.

- a) 事必本夫心…然無星之秤不可以程物 故輕重生權衡 非權衡生輕重 善言心者 必有驗于事矣
- b) 法必本於人…然恃目巧 師意匠 般爾不能開造而出台 善言人者 必有資於法矣
- c) 今必本夫古…然昨歲之曆 今歲而不可用 高曾器物不如祖父之適宜 時愈近 勢愈切…善言古者 必有驗於今矣
- d) 物必本夫我 然兩物相摩而精者出焉 兩心相質而疑難形焉…善言我者 必有驗於物矣²⁵⁾

그는 事와 心, 法과 人, 今과 古, 物과 我를 긴장관계로 파악하고 각각 事・法・今・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心에 대한 事의 강조는 觀念보다는 實事에의 證驗을, 人에 대한 法은 人格・法 등과 같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지식 또는 기술의 구체성을 우위에 두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古에 대한 今은 글자그대로 過去보다는 現在가, 我에 대한 物은 주관의 獨斷보다는 客觀性이 존중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魏源의 經世思想은 實事・구체적인 지식, 現在・객관성 등으로 지탱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위와 같은 魏源 思想의 實用的 性格 및 經世致用的 정신은 학문

24) 「皇朝經世文編五例」, p. 158.

25) 「皇朝經世文編叙」, p. 156.

의 비정치성의 극복, 학문과 정치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修己治人에 대한 反省으로부터 시작되어 학문과 사상의 사회·정치적인 의무에의 환기를 핵심으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治國惠民’·‘經世致用’을 理想으로 現實參與가 중시되어 온 儒家精神의 재확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그의 經世思想은 儒家的 本領의 19세기적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思想은 儒家的 테두리 內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으니, 나아가서 儒家이외의 전통사상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전통사상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의 經世思想의 확충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편견없는 관심과 평가가 가능하였던 것은 객관적인 歷史認識이라는 바탕 위에서였다. 따라서 다음 節에서는 그의 經世思想의 확충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歷史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2. 傳統思想의 再評價와 折衷

魏源의 歷史認識의 기초는 ‘變化’에 대한 통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變化에 대한 통찰이야말로 모든 歷史現象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나아가서는 現在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歷史를 ‘變’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가 아닐 수 없다.

歷史, 즉 과거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天·地·人·物의 不同함으로써 설명하였다. 즉,

三代以上 天皆不同今日之天 地皆不同今日之地 人皆不同今日之人 物皆不同今日之物²⁶⁾

이라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未來의 모습 또한 今日과는 다를 것이었다.

26) 「默觚」下, 治篇 5, p. 47.

사회의 諸制度의 歷史에 대한 이해는 魏源의 變化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곧, 아래와 같은 稅制와 官吏登用法, 兵制 등에 관한 이해는 그 좋은 예이다.

租庸調變而兩稅 兩稅變而條編 變古愈盡 便民愈甚 雖聖王復作 必不舍條編而復兩稅 舍兩稅而復租庸調也 鄉舉里選變而門望 門望變而考試 丁庸變而差役 差役變而僱役 雖聖王復作 必不舍科舉而復選舉 舍僱役而爲差役也 丘甲變而府兵 府兵變而驍騎而營伍 雖聖王復作 必不舍營伍而復爲屯田爲府兵也²⁷⁾

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時代의 변천에 따른 制度의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논하였다. 또한 그는

天下事 人情所不便者變可復 人情所群便者則不可復²⁸⁾

이라 하여 그러한 현상들이 많은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고 보았다. 그것은 곧 나날이 變하여 돌아킬 수 없는 ‘勢’였던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風俗에 대해서도

十履而一跣則跣者恥 十跣而一履則履者恥 此俗之以衆成者乎²⁹⁾

라 하였는데 風俗도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勢’로 파악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魏源은 自然·制度·風俗 등을 우선 그 變化를 전제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制度나 風俗의 變化는 自然現象의 변화와는 달리 自然發生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人間의 주체적 사고 또는 행위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歷史現象의 變化를 초래하는 動因이 단순히 時間的 經過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歷史的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人

27) 同上書, p. 48.

28) 同上.

29) 「默觚」下, 治篇 14, p. 73.

間的 의지에 있다고 본 것이었다.³⁰⁾ 그러므로 歷史의 過去는 現在의 입장에서 論해져서는 안될 것이었으며 또한 逆으로 現在도 과거의 틀로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魏源은 歷史의 過去에 대하여 일체의 아프리오리한 규범을 배제한 狀況의 思考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山居難與論舟行之險 澤居難與論梯陟之艱 處富不可與論貧 處暇不可與慮猝 處享不可與言困 處平世不可與論患難...曾不設身以處地 不平心以衡其輕重³²⁾

이라 하고 있듯이 局外者の 입장에서는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狀況의 思考의 예는 다음에서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다. 곧 그는

狂者東走 逐狂者亦東走 溺者入水 拯溺者亦入水 或吹火而然 或吹火而滅 所以吹者異也³³⁾

라 비유하고 있는 바와 같이 現象的으로는 같은 행동속에도 자기 다른, 또는 전혀 상반된 동기가 內在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魏源은 하나하나의 歷史的 現象 또는 歷史上的 時代가 지닌 그 자체의 正當한 的의를 인정하고, 일체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歷史의 人物, 學問·思想에 대하여 正當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였다.³⁴⁾ 歷史的 過去에 대한 바로 이러한 인식이 魏源으로 하여금 그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취하게

30) 坂出祥伸은 이와 관련하여 魏源에게 있어서 歷史展開의 中核은 '人間的自然'과 '人間的慾求'라고 하였다. 「魏源의 社會觀」(『中國近代의 思想と科學』, 京都 1983), p. 72 參照.

31) 「默觚」下, 治篇 5, p. 48 參照.

32) 「默觚」下, 治篇 4, p. 46.

33) 同上.

34) 이러한 思惟方法은 章學誠의 客觀的 現狀認識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歷史主義的 思考의 한 예로 지적되기도 한다. 野村浩一, 前掲書, p. 47 參照.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그는 儒敎의 테두리 內에서 대립관계에 있던 각 학파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포용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곧 朱·陸, 漢·宋의 대립에 대하여

經有奧義 有大義 研奧者必以傳注分究而始精 玩大者 止以經文集觀而自足…自明以來 學者爭朱陸 自本朝以來 學者爭漢宋 今不令學朱學陸而但學孔孟焉 夫何靜…謹質所疑 俟知德君子折衷焉³⁵⁾

이라 하여 그 절충을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로는 經의 奧義를 찾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大義를 구하고자 하느냐 하는 목적의식에 따라 方法論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우열논쟁은 무의미하였던 것이다. 나아가서

儒墨甫息爭 儒復歧漢宋 漢學今古文 宋學朱陸關 出入多主奴 鴻溝虞芮訟…味合酸鹹中 歧之水炭乘 互之坎離共 安得圓機士 狂狷中行統³⁶⁾

이라 하고 있듯이 漢·宋, 朱·陸의 대립은 마치 鴻溝·虞芮의 다툼과 같은 것으로서 그들의 주장들은 酸·鹹, 水·炭, 坎·離 등과 같이 서로背馳되는 것이지만 相互補完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다고 본 것이었다.³⁷⁾

이러한 折衷論의 전개는 사실상 乾嘉朝 이래로 대두하기 시작한 漢·宋學 절충의 經世論과도 관계가 있다. 즉 앞의 節에서도 언급했듯이 각각 訓詁註釋의 말단으로 科學 준비의 官學으로 타락한 漢學 및 宋學의 經世學으로서의 기능상실에 직면하여 그 長短點을 절충 보완하여 經世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常州 今文學派, 桐城 古文辭派, 浙東 史學派들 사이에서 각각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³⁸⁾

35) 「論語孟子類編序」, pp. 145~147.

36) 「家塾示兒書」, p. 653.

37) 吳澤은 이것을 변증법적 발전과정으로 파악하였다. 前揭論文, pp. 36~39 參照.

38) 曹秉漢, 「曾國藩의 經世體學과 그 歷史的 機能」(『東亞文化』 제15집, 1978), pp. 96~97 參照.

그러나 魏源의 절충의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儒敎 이외의 전통사상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그는

古今往來 是非之場壘也…孔老異學而相敬 夷惠異德而同聖 箕比異迹而同仁 四科並出于尼山 九流同宗乎古帝…柳下·伯夷·伊尹方以內之聖也 老聃·墨翟方以外之聖也 惟聖人時乘六龍以御天 潛龍飛躍 無有定在 時惠時夷時尹非惠夷尹也 有時似老似墨似楊而非老墨也³⁹⁾

라 하고 있듯이 老子·墨子 등 正統 이외의 思想·人物들에까지 그 歷史의 個性을 인정하여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어떤 가치는 교정적 구범이나 교조에 속박되지 않아야 할 상대적 개념⁴⁰⁾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이었다고 하겠다.

전통사상에 대한 이러한 再評價는 魏源의 經世思想의 기초를 儒敎의 테두리 밖의 것에서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곧,

兼黃老申韓之所長而去其所短 斯治國之庖丁也⁴¹⁾

라 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그의 思考 틀 속에는 유교의 절대성, 즉 非歷史的 固定觀念이 되어 온 불가침의 영역이 와해될 가능성이 배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履不必同 期于適足 治不必同 期于利民⁴²⁾

이라 하고 있듯이 ‘治’에 있어서 ‘利民’, 즉 經世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39) 「默觚」上, 學篇 11, p. 29.

40) 이러한 사고는 歷史的 時間의 개념에 입각한 歷史的 存在理由의 인식이다. 野村浩一, 前掲書, pp. 43~44 參照. 한편으로 이러한 인식은 그 자신이 “古今宇宙 其一大奕局乎”(「默觚」下, 治篇 16, p. 78.)라 하고 있듯이 극단적인 상대주의 또는 초탈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41) 「默觚」下, 治篇 3, p. 45.

42) 「默觚」下, 治篇 5, p. 48. 또한 이와 관련하여 “君子之用世也 道不必盡同 智士之同朝也 轍不必相合”이라 하였다. 「默觚」下, 治篇 6, p. 50.

사상의 절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의 魏源의 經世思想이 유교 內의 각 학파간의 대립을 절충하려는 단계를 넘어서 유교이외의 전통사상 모두를 포용하려는 데에까지 확충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하였다.⁴³⁾ 그가 『老子本義』·『孫子集注』 등의 주석서를 남긴 것이나 晩年에 佛敎를 통하여 經世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 사실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⁴⁴⁾

요컨대 ‘變’의 개념에 입각한 歷史의 人物·時代·制度·思想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당한 이해는 그의 사상이 일정한 도그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그로 하여금 유교 內의 각 학파 간의 대립에 대한 화해와 더불어 老子·墨子 등의 전통사상 속에서도 經世思想의 기초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전통사상의 재평가와 折衷의 수용은 유교의 절대성이 부정될 수 있는 대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 經世思想으로서 완전하게 그리고 배타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儒敎는 그 주도적 위치를 도전받았다고 보다는 老子·墨子 등의 전통사상들에 의하여 오히려 보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이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 유교이외의 전통사상들은 유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代案은 아니었다. 곧, 『詩』를 인용하여

43) 이러한 전통사상의 절충에 대하여 전통문명 자체 內에서 諸學派가 벌여왔던 대립의 時間性이 異質의인 서구문명의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여 中西對立의 空間性으로 전환하자 전통적 학파들 사이의 同質性이 확인되고 그들의 절집을 요청하게 되어 비로소 曾國藩 등에 의해 折衷論이 등장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Joseph R. Levenson, *op. cit.*, pp. 49~53). 曹秉漢은 曾國藩의 절충론은 外勢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미 골격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前揭論文, p. 96). 그런데 曾國藩의 이전에도 魏源 등에게서 전통사상의 절충과 포용이 보여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魏源의 師夷論은 이러한 절충의 공간적인 확대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44) 魏源의 晩年의 佛敎에의 심취와 『淨土四經』의 刊行 등을 단순히 현실도피적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吳澤, 前揭論文, pp. 57~59). 그러나 楊文會는 『淨土四經』의 重刊 跋文에서 魏源의 經世學은 그 本源이 “淨業圓成 乃由體以赴於用” 하고자 한 이른바 佛敎의 念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았다. 王家儉, 『魏源年譜』, pp. 148~149 參照. 한편으로 魏源의 佛敎에 대한 관심은 晚清의 佛學研究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梁啟超, 『清代學術概論』, p. 173.

「魚潛淵 或在于渚」言必淵乎道 渚乎道也⁴⁵⁾

라 하고 있듯이 魏源에게 있어서 儒敎와 그 외의 전통사상과의 관계는 마치 道의 '淵'과 '渚'에 비유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儒敎·老子·墨子 등의 전통사상들이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道'에 대한 인식이다. '道'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고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전통문명의 本質을 의미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魏源은 이 '道'에 대하여,

故氣化無一息不變者也 其不變者道而已⁴⁶⁾

라 하였는데 곧 道를 不變의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魏源의 老子·墨子 등 정통 유교사상 이외의 전통사상들에 대한 재평가와 經世를 위한 포용과 절충은 유교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전통문명 본질의 不變과 持續性이라는 대전제에 의해서 제한될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전통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不變과 持續性으로의 인식이 魏源의 經世思想의 限界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魏源思想의 實用的 性格 및 經世致用의 精神,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본 전통사상의 재평가와 절충 등은 현실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여 諸改革案을 강구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 內在한 전통의 맥락은 그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既存制度와의 밀착의 정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魏源의 經世策을 구체적으로 살펴 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의 經世思想의 의의와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經世策의 성격을 결정하는 思想外的인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幕友로서의 魏源에 대해서 주목한다면 經世策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45) 「默觚」上, 學篇 12, p. 29.

46) 「默觚」下, 治篇 5, p. 48.

Ⅲ. 幕友로서의 魏源과 經世策의 展開

1. 漕運·鹽政·水利를 中心으로 한 經世策의 검토

魏源의 經世策은 漕運·鹽政·水利 등에 대한 改革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漕運·鹽政·水利 등은 전통질서 內에서는 특히 財政과 관련된 분야로서 清代 사회의 부패와 쇠락의 징후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魏源의 經世活動의 중심지였던 江蘇의 地理的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문제들이었다.

江蘇省은 米穀產地일 뿐만 아니라 黃河의 南口를 포함하고 있으며 南北으로는 길게 運河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兩淮의 鹽產地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당시의 北京 行政府의 稅入이 대체로 地稅와 鹽稅, 약간의 關稅收入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揚子江下流의 漕糧의 수송과 그와 관련된 黃河의 治水, 그리고 鹽政 등은 江南 地方行政의 核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 세기에 접어들면서 白蓮教徒의 亂을 비롯한 각종 소요의 진압에 따른 막대한 軍費의 지출과 점차 심각해 지고 있던 阿片貿易에 의한 銀의 流出은 國家財政을 궁지로 몰아 넣고 있었다. 그리하여 清朝는 전통적으로 주요 수입원이던 漕運과 鹽政 등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우기 徵稅過程의 부정과 각종 陋規 등이 民에 끼치는 피해 또한 극심하여 改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魏源도 이와 같은 점들을 인식하고 國計와 東南의 民計를 위한 變通의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러면 漕運·鹽政·水利 등에 관한 그의 改革案을 中心으로 그 내용의 대강을 차례로 살펴 본 다음 그에 공통된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漕運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道光 4년(1824) 黃河의 범람으로 그때까지 漕運의 主流을 이루어 왔던 河運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이에 河運을 代替할 方法의 모색과 더불어 改革의 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魏源은 阮元·英和 등과 함께 “時務는 곧 勢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論理 아래 海運을 주장하였다. 곧,

天下勢而已矣 國朝都海 與前代都河都汴異 江浙濱海與他省遠海者異 是之謂地勢
元明海道官開之 本朝海道商開之 海人習海猶河 是之謂事勢 河運通則濱以爲常 河運
梗則海以爲變 是之謂時勢⁴⁷⁾

라 한 것에서 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즉 天下는 勢일 따름인데 당면한 地勢·事勢·時勢는 모두 그에 적절한 變法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魏源의 變法은 획기적인 改革이었다기보다는 舊法의 테두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魏源은 다음과 같은 代案을 제시하였다.

道不待訪也 舟不更造也 丁不再募 費不別籌也 因商道爲運道 因商舟爲運舟 因商
估爲運丁 因消費爲海運費⁴⁸⁾

즉 河를 海로, 官을 商으로 代替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商道를 運道로 商舟와 商估를 運舟·運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元대에 이미 海運 실시의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康熙帝의 解禁 이후로 海商이 점차 발달하고 있던 당시로서는 위와 같은 商船을 이용한 海運 실시에 대한 전의는 既存의 조건 아래에서도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대책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魏源의 “因勢之法”을 토대로 1826年 江蘇 布政使 賀長齡과 巡撫 陶澍는 4월부터 8월까지 上海에서 약 1,500여척의 商船을 모집하여 海運으로 163만여石의 漕糧의 수송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經費·所要時間·安全度 등에 있어서 河運에 비해 월등함을 나타내었다.⁴⁹⁾ 또한 商人

47) 「籌漕篇」上, p. 404.

48) 同上.

49) 1826년의 海運실시의 경과 및 그 성과에 대해서는 魏源의 「道光丙戌海運記」에 잘 나타나 있다.

들도 8:2 또는 7:3의 비율로 얼마간의 商貨를 싣고 商業에도 종사할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2회를 왕복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海運의 실시가 海商의 부흥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⁵⁰⁾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에 運河가 복구되자 漕運은 곧 河運으로 환원되어 버렸다.⁵¹⁾ 그것은 因習과 일종의 정치적 保守性의 문제였는데 海運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江蘇省과 같은 실제의 納漕를 책임맡았던 州縣의 관리들이 中心이었던 반면에 河運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로 既存의 체제속에서 既得權을 누리고 있던 河漕總督을 비롯한 漕河官吏들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다.⁵²⁾

魏源이 제시한 海運案은 임시방편으로서의 運道の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海運案의 보다 깊은 목적은 海運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漕運行政의 쇄신을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 곧 그는 기존의 河運체제 속에서는 江蘇의 漕弊가 제거될 수 없으며 동시에 京倉의 缺額또한 보충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⁵³⁾ 魏源의 이러한 주장은 江蘇의 前後 巡撫 또는 兩江總督인 陶澍·蔣攸銓·李星沅·陸建瀛 등에 의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간헐적으로 시도되었으나 행정체제의 구석구석에 만연된 인습과 타성으로 인하여 그 지속적인 시행은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⁵⁴⁾ 그러나 그것은 漕運의 폐지와 近代의인 조세제도의 확립을 향한 귀중한 출발점이 되는 셈이었다.

다음으로 水利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中國 歷史上 특히 黃河에 있어서의 治水의 중요성은 이미 알려진 바다. 또한 河道는 漕運의 運道

50) 張哲郎, 『清代的漕運』(臺北, 1970), pp. 55~60; 山口迪子, 「清代の漕運と船商」(『東洋史研究』 17, 1959), pp. 56~72 參照.

51) 河運으로의 복귀는 船商 물탁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山口迪子, 前掲論文 參照.

52) 張哲郎, 前掲書, pp. 55~60 參照.

53) 「籌漕稿」下; 「復蔣中堂論南漕書」 등.

54) 실제로 海運이 漕運의 주류로서 시행된 것은 太平軍의 소요로 河道가 완전히 차단된 咸豐 3년 (1853)에 이르러서야였다. 張哲郎, 前掲書, p. 60.

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治水는 漕運의 成敗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였다.⁵⁵⁾ 가뭄이나 홍수 등 잦은 災害에 따른 정비나 복구뿐만 아니라 그 대비를 위한 평상시의 治河行政 또한 노동력의 동원, 비용면에 있어서 民生과 國家財政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특히 혼란기의 사회에서 드러나는 많은 모순들은 治河行政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魏源은 당시 治河의 상황과 河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人知國朝以來 無一歲不治河 抑知乾隆四十七年以後之河費 既數倍於國初 而嘉慶十一年之河費 又大倍於乾隆 至今日而底高淤厚日險一日 其費又浮於嘉慶 遠在宗祿·名糧·民缺之上⁵⁶⁾

곧 近年에 이룰수록 河費의 증가와 그 영향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합리적인 治河行政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黃河 유역의 地勢와 水性에 관한 書物을 연구함과 동시에 實地의 檢證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의 河道가 地勢에 逆行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清河로부터 入海하는 새로운 河道의 改設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⁵⁷⁾

河道의 변경에 대한 魏源의 이와 같은 주장은 運道의 정상화를 위한 治河의 의미를 넘어서 舊道속에서 既得權을 누리고 있던 冗員·冗官의 소탕에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즉 「籌河篇」의 머릿글에

我生以來 河十數決 豈河難治 抑治河之拙 抑食河之饗 作籌河篇⁵⁸⁾

이라 하고 있듯이 합리적인 '治河'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그 방법의 비합

55) Ch'ang-tu Hu, "The Yellow River Administration in the Ch'ing Dynasty," *Far Eastern Quarterly*, 14 (1955), p. 506.

56) 「籌河篇」上, p. 365.

57) 「籌河篇」中, pp. 368~374. 이러한 주장은 咸豐 5년 (1855) 黃河가 범람하였을 때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淸史列傳』, 卷 69, 「魏源傳」參照.

58) 「籌河篇」上, p. 365.

리성(拙)이외에도 ‘食河之餐’의 존재를 들고 있다. 곧

但言防河不言治河 故河成今日之患 但籌河用不籌國用 故成今日之匱⁵⁹⁾

라 한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治河行政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의 구태의연한 자세야말로 實用과 公益에 대한 弊와 患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⁶⁰⁾

이처럼 海運案의 건의에 있어서나 治河行政에 대한 魏源의 代案 등은 모두 기득권을 둘러싼 타성과 舊法에의 安住라는 현실의 改革에 더 큰 의미가 두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당시 행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뿌리 깊은 모순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의 改革案들은 비현실적인 절차 또는 방법의 수정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魏源 改革의 또 다른 대상이었던 鹽政은 國家財政과 관련하여 볼 때 漕運이나 水利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鹽商은 交易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中央財政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鹽供給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亂의 平定 등에 소모되는 軍資金을 동원하는 등 國家財政을 좌우할 수 있는 流動資本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民의 필수품으로서의 鹽의 중요성이나 국가전매로 인한 官督商運이 파생하는 문제는 오래도록 行政上의 論爭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中央政府은 自衛를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鹽商의 특허권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특히 거듭되는 혼란 속에서 구태의연한 제도로부터 파생되어 온 갖가지 弊들은 經世家들의 改革論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 것이었다.

전체 鹽稅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准鹽地域을 관할하는 江南의 鹽政은 그 규모에 비례하여 관매와 鹽稅징수에 수반된 弊 또한 극심하였다.

59) 同上.

60) 「籌河篇」中, p. 374 ; 「籌河篇」下, p. 379 등 參照.

鹽專賣의 일차적인 목적이 國家財政과 관계되었던만큼 이에 대한 改革案은 자연히 國家稅入에 위협적 존재이던 私鹽과 밀매염에 대한 조치를 中心으로 전개되었다.

魏源은 私鹽과 밀매염을 단속하고 鹽專賣의 이익을 되도록 많이 國家의 收入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은 곧 鹽價를 낮추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⁶¹⁾ 그 鹽價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며 또한 비용의 절감은 弊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는 論理를 전개하였다.⁶²⁾ 곧 이에 의하면 ‘除弊’가 鹽政改革의 기초이자 先決條件이었다. 그것은

天下無興利之法 除其弊則利自興矣⁶³⁾

라는 리얼리스트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소극적 입장에 머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魏源의 의도는 清末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득세하던 私鹽業者나 밀매염업자들의 횡포를 단속하여 鹽專賣를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鹽專賣를 合理的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세습 특허 제도였던 ‘引’ 대신에 ‘票’의 실시를 주장하였다.⁶⁴⁾ 이러한 의견은 실제로 江蘇巡撫 陶澍에 의하여 주도된 淮鹽改革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淮鹽改革의 성과는 곧 票鹽制度의 실시로 말미암아 국가전매에 위협적 존재이던 크고 작은 私鹽業者와 밀매염업자들을 모두 국가의 통제 아래 수렴시키고 국가에서는 그들로부터 票에 따라 고정된 稅額을 징수할 수 있었

61) 魏源은 鹽政의 문제점을 “利出二孔三孔病國病民”이라 요약하고 그 해결책이 “利出一孔”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籌餉篇」, p. 431.

62) 「籌餉篇」, p. 438; 「淮南鹽法經本敵私議自序」, p. 443.

63) 「籌餉篇」, p. 438; 「淮北票鹽志叙」, p. 438. 魏源은 이러한 출발이 곧 “衣垢必澣 身垢必浴”과 같은 가장 가깝고도 기본적인 것이라 하고 있다.

64) ‘票’는 ‘引’에 비해 그 단위가 1/1,000 정도였으므로 大商뿐만 아니라 영세 鹽商까지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특허제도였다.

다는 데 있다.⁶⁵⁾ 특히 이와 같은 成果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私鹽業者 밀매업자들이 가장 전형적인 反政府 匪徒들이었던만큼 이들에 대한 통제책으로서의 또다른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魏源의 改革論의 대상이었던 漕運·水利·鹽政 등은 中國의 전통적인 질서 內에서 공통적으로 財政과 관련된 분야였다. 이들은 모두 담당기구의 설치, 그 확대와 分散 그리고 나아가서 해체라는 궤도를 그리면서 발전해 온 清代 官僚制度의 성격울 반영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예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더우기 전통질서의 해체기에 있어서 이들 각 제도의 分岐化된 행정체제의 구석구석에는 私의인 부정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즉 관습의 기초 위에 철저히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弊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除去에 魏源의 改革案의 기초가 있었다고 하겠다. 곧,

君子不輕爲變法之議 而惟去法外之弊 弊去而法仍復其初矣⁶⁶⁾

라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魏源은 그의 改革論에서 ‘法’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기보다는 ‘法外之弊’의 除去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그 弊들은 제도의 煩難·煩重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여 變通을 위한 簡易化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天下無數百年不弊之法 亦無窮不變之法 亦無不易簡而能變通之法⁶⁷⁾

65) 淮鹽改革과 票鹽制度의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omas A. Metzger, "T'ao Chu's Reform of the Huaipai Salt Monopoly, (1831~1833)," *Papers on China*, 16 (1972), pp. 1~19 參照. 특히 魏源·王鳳生 등 실무 經世家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魏源은 1849년부터 50년까지 淮北海州 分司運判의 자격으로 직접 鹽政관리에 나서기도 하였다. 王家儉, 『魏源年譜』, p. 124 參照.

66) 「默觚」下, 治篇 4, p. 46.

67) 「籌鹺篇」, p. 432.

이라 하고 있듯이 ‘勢’와 ‘變’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思考에서 연유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魏源의 改革案은 이와 같이 ‘法外之弊’의 제거와 번중한 제도의 簡易化 등 吏治의 合理化라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江南地方의 行政改革의 일환으로 강구된 것이었으나 궁극적으로 國家財政의 增額, 나아가서는 既存體裁의 강화로 귀속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魏源의 改革案의 의의로서는 곧 현실적인 實現可能性을 전제로 강구되어 적어도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合理的 實踐의 性格을 지적할 수 있다. 魏源도 이 점과 관련하여

夫推其本以齊其末 君子窮原之學也 宜民者無迂途 實效者無虛議 大人化裁變通之事也⁶⁸⁾

라 한 바 있듯이 宜民·實效를 위해서는 迂途·虛義를 취할 수 없다는 그의 實用的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곧 『皇朝經世文編』 편찬 時에 이미 魏源 思考의 核을 이루어 ‘道存乎寔用’에 집약될 수 있었던 그의 實用的 價值觀의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그는 『皇朝經世文編』을 편찬하는 가운데 터득했을 治術에 관한 여러가지 이론을 漕運과 鹽政, 水利 등의 문제에 직접 부딪침으로써 현실 생활에 응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海國圖志』에서,

以實事程實功 以實功程實事…毋馮河 毋畫餅⁶⁹⁾

이라 한 바와 같은 새로운 實事求是의 精神⁷⁰⁾을 잉태할 수 있었다고 생각

68) 同上.

69) 「海國圖志序」, p. 208.

70) 既存學風에 대한 反省으로부터 대두된 19세기의 經世思想 또는 經世學은 時代의 요구에 부응하여 점차 致用論으로 고조되어 갔던 것으로 주목되는데(全海宗, 「實學概念의 史的 考察」參照) 그 예를 魏源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註 7) 參照.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사실은 비록 그의 改革案이 合理的이고 實踐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절차 또는 방법의 수정이나 弊의 제거 등 대체로 소극적인 대응책이었다는 점이다. 곧 魏源의 經世策에 있어서의 實踐性은 그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魏源의 經世策의 性格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우선 實踐을 전제로 한 改革案의 제시와 그 實施는 기본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없이 불가능할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科擧制를 中心으로 量産된 ‘通儒’로서의 士大夫가 어떻게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實用的 價値를 論外로 한다면 그의 經世策이 왜 ‘法’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法外之弊’의 제거나 행정체제의 簡易化 등 행정적인 개선방안의 제시라는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서 해체기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既存體裁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곧 이 두 가지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앞의章에서 살펴 본 魏源의 經世思想이 지니는 의의와 限界의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魏源의 社會的 위치 등 思想外的인 背景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節에서는 특히 幕友으로서의 魏源과 그의 經世策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2. 幕友의 기능과 經世策의 한계

幕友란 地方官들에 의하여 私的으로 임용된 행정비서관으로서 行政實務를 보좌하고 있던 관료제도 밖의 전문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¹⁾ 韓振은 그

71) 幕友의 성격과 역할은 中國의 制度史에서 배놓을 수 없는 幕府制度를 이해하는 가운데 규정지어 질 수 있다. 幕府의 歷史가 秦·漢시대로부터 거슬러 올

의 '幕友論'에서

內掌曹郎之事 以代六部出治者胥吏也 外掌守令司道督撫之事 以代十七省出治者幕友也⁷²⁾

라 하여 地方行政에 있어서의 幕友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듯이 특히 淸代의 地方官들은 대부분 그들의 行政實務를 幕友들의 도움으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⁷³⁾ 幕友를 비록 近代의인 관료제도에 있어서의 전문지식인에 상응할 만한 계층⁷⁴⁾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通儒를 理想으로 한 '君子不器'의 아마추어리즘이 지배하던 전통사회에 있어서 行政官의 實務能力의 결여, 즉 통치를 위한 專門知識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⁷⁵⁾ 특히 地方官에 대한 각종 回避制度和 견제 등으로 생겨날 수 있는 지방행정의 단절성은 이들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었다고 하겠다.⁷⁶⁾

라 감을 볼 때, 군사적인 문제와의 관련도라든가 중앙정부의 개입 정도 및 정식관리로의 승진 기회 등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다. 幕府制度가 가장 광범위하게 성행하였던 淸代의 경우, 특히 太平天國 以前の 幕府는 군사적인 것과는 관계가 먼 地方行政의 中核이었다고 할 수 있다. Kenneth E. Folsom, *Friends, Guests, and Colleagues: The Mu-fu System in the Late Ch'ing Period* (Univ. of California Press, 1968), pp. 34~57 參照.

72) 賀長齡編, 『皇朝經世文編』 卷 25, 吏政 11, '幕友'.

73) 직업적인 幕友가 등장하는가 하면 乾隆年間에 幕友로서 명성을 얻었던 王輝祖는 『佐治藥言』 등의 전문적인 幕學書를 남기기도 하였다.

74) 幕府 자체가 中央의 任用과는 관계없는 정상적인 관료제도 밖에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제도"라 불려질 수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幕友 또한 幕賓·幕客·幕僚 등의 다양한 명칭이 말해 주듯이 전통사회 內에서 일정한 신분 또는 위치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5) 幕友의 다양한 역할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으나 刑名·錢穀 등을 중심으로 적게는 2~3人, 많게는 십 수명에 이르는 전문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繆全吉, 「淸代幕府之官幕關係與幕席類別」(『思與言』, 7·1, 1969); 繆全吉, 「淸代幕府制度之成長原因」(『思與言』, 5·3, 1967), pp. 25~33 參照.

76) T'ung-tsu Ch'ü, *Local Government in China under the Ch'ing* (Stanford Univ. Press, 1969): Chap. VI, "Private Secretaries," pp. 107~111.

魏源은 1826年 會試에 失敗한 후 江蘇 布政使 賀長齡의 幕友로서 入幕하였다.⁷⁷⁾ 그가 어떤 경로로 賀長齡의 주목을 끌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오랫동안 江蘇의 主簿·巡檢 등을 지내면서 前後 布政使·巡撫 들에게서 신임을 얻고 있었던 父親의 영향과 京師에서 그의 학문적 명망이 알려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25年 賀長齡의 요청으로 『皇朝經世文編』의 편찬책임 맡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의 과거실패는 그로 하여금 賀長齡의 幕府에 머물게 하였던 듯하다. 즉 魏源의 직접적인 入幕의 동기는 會試失敗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家系가 代代로 벼슬로서 출중한 인물이 없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한다면⁷⁸⁾ 科擧에 뜻을 두었으되 경제적인 이유로 幕友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⁷⁹⁾

그러나 그의 思想의 實用的 性格이 지나치게 형식에 구애되고 있었던 科擧制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리라는 짐작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는 1829年에 한 차례 더 禮部試에 응하였으나 그 후 1843년까지 즉, 그의 幕友期와 일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科擧에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글 곳곳에서는 科擧制度에 대한 비판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들면.

其造之試之也 專以無益之畫餅 無用之雕蟲 不識兵農禮樂工虞士師爲何事 反一旦用之也 則又一人而徧責以六官之職 或一歲而徧歷四方民夷之風俗 舉孔門四科所不兼 唐虞九官所不攝者 而望之科擧免冊之人…及事之治 則拊髀而歎天下之無才 烏乎天下果眞無才哉⁸⁰⁾

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人才를 양성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방법이 小楷書·八韻詩 등 현실에 無用·無益하며,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직에 등

77) 王家儉, 『魏源年譜』, p. 30.

78) 同上書, 「魏先生家世」參照.

79) 직업적인 幕友 가운데는 과거에 뜻을 두었으나 과업은 이루지 못하고 經濟的인 이유로 幕友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閔斗基, 「清代幕友制와 行政秩序의 特性」(『中國近代史研究所』, 서울, 1973), p. 149.

80) 「默觚」下, 治篇 1, p. 37.

용이 되던 한 사람의 偏責·偏歷의 全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나아가서 魏源은 위와 같은 科擧制를 中心으로 한 교육과 人才의 등용, 그리고 그들에 의한 통치의 과정에는 '所養'과 '所用'의 괴리가 있다고 파악하고⁸¹⁾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人才의 전문화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用人者宜各因其所長 勿以師儒治郡國 勿以方面之材責師儒⁸²⁾

라 하여 儒家의 人間像인 全能의 通儒가 아니라 요소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의 등용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儒家 가운데에서도 '治經의 儒', '明道의 儒', '政事의 儒'가 판연히 구분되듯이⁸³⁾ 人才를 등용할 때는 반드시 각각의 장점에 따라 해야 하며, 그들의 유기적인 협동관계를 統治의 理想形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그의 科擧制 비판과 전문인의 등용에 대한 주장 등을 고려한다면 그의 幕友로서의 活動은 科擧失敗로 인한 生活手段으로서의 소극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經世活動의 일환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 存在理由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곧, 魏源에게 있어서 幕友는 通儒를 이상으로 하는 비합리적·비현실적 人間像을 극복하기 위한 전통사회 내에서의 變通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經世意識을 가진 士大夫의 적극적인 자기변모의 한 例가 아닌가 생각된다.⁸⁴⁾ 특히 幕友는 교양이나 사회적 成分에 있어서 胥吏와는 달리 士大夫이거나 士大夫에 準하는 官과 同類的인 補佐者라는 점에서⁸⁵⁾ 身分에 대한 심리적인 열등의

81) 同上.

82) 「默觚」下, 治篇 6, p. 50.

83) 「默觚」上, 學篇 9, p. 23.

84) 즉 그는 幕友라는 경로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간접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한 듯하다. Kenneth E. Folsom, *op. cit.*, p. 34 參照.

85) 閔斗基, 前揭論文, p. 144; T'ung-tsu Ch'u, *op. cit.*, pp. 107~111 參照.

식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이다.⁸⁶⁾

魏源은 江蘇布政使 賀長齡의 幕友로서 출발하여 賀長齡이 山東布政使로 이임한 후에도 江蘇巡撫·兩江總督에 있던 陶澍·林則徐·裕謙·陸建瀛·李星沅 등과의 관계 속에서 1840년대까지 幕友로서 활동하였다. 곧 1844년 52세에 進士에 급제하여 揚州 東台知縣을 맡을 때까지는 대체로 幕友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 후에도 母喪을 당하여 辭官하였을 때 陸建瀛·李星沅 등의 幕友로서 일하였으므로⁸⁷⁾ 그의 중년의 왕성한 활동기는 대부분 幕友로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魏源은 이처럼 江蘇布政使, 巡撫 또는 兩江總督의 幕友로서 江南의 內政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顧問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는 漕運·鹽政·水利 등 財政과 관련된 분야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⁸⁾ 앞의 節에서 살펴 본 諸改革案은 대부분 이러한 幕友의 입장에서 官幕關係를 배경으로 초안되었다. 곧 그의 改革案들은 賀長齡·陶澍 등 그가 幕友로서 보필하였던 官을 代筆한 것이나 그들에게 건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주목된다고 하겠다.⁸⁹⁾

그러므로 魏源의 經世策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86) 魏源의 경우는 특별한 官職에 있지 않을 때에 幕友로 있었으나, 曾國藩·李鴻章 등에 의하여 권력이 집중되어 幕府가 보다 조직화되었을 때에는 按察使·布政使 등 비교적 高官의 지위에서 幕友가 되기도 하였음을 고려할 때 幕友에 대한 인식도 점차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薛福成, 「叙曾文正公幕府賓僚」(左舜生編, 『中國近百年史資料初編』, 臺北, 1958), pp. 131~135 參照.

87) 王家儉, 『魏源年譜』參照.

88) 魏源이 幕友로 있었던 賀長齡 등의 幕府는 曾國藩이나 李鴻章의 幕府와 같이 그들에 의해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조직화되거나 확대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개별적인 幕府에 관한 기록이 없어 魏源의 幕府內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다.

89) 代表의인 예로 「皇朝經世文編序」, 「海運全案序」, 「復魏制府詢海運書」(以上, 代賀長齡); 「復蔣中堂論南漕書」, 「淮北票鹽志叙」, 「東南七郡水利略叙」(以上代陶澍); 「上陵制府論河水利書」(上陵建瀛)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多數가 있다. 또한 『海國圖志』도 林則徐의 요청에 의해 그가 제공해 준 자료를 토대로 편찬하였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官幕關係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幕友의 行政秩序內에서의 위치와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幕友의 官과의 관계는 師弟·朋友·賓主 등으로 매우 다양하나 모두 비공식적인 친분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공통으로 한다.⁹⁰⁾ 따라서 幕友는 실제로 行政實務를 관장하는 지방행정의 수뇌부이자 고문이면서도 그들의 政治參與는 官과의 비공식적이고 私的인 관계 속에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신분에 있어서는 隸屬이 아닌 橫的인 抗禮關係에 있었으나⁹¹⁾ 기능면에서 보면 분명히 官이 고용한 秘書官이라는 縱的인 위치에 있었다.⁹²⁾ 또한 말단의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胥吏가 전통적으로 土着的 입장에 서 있어 官과 對立的인 경우가 많았던 데 反하여⁹³⁾ 幕友는 그들의 보수를 제공해 주는 개개인의 官의 편에 서 있었다⁹⁴⁾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적인 官幕關係를 염두에 둔다면 幕友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改革案은 그 性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官, 즉 지배기구에 종속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幕友가 기존제도의 밖에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은 一見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조명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局外者의 입장에서 사회의 제도적 모순의 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며, 특히 전문인으로서의 안목과 그 활동의 범위가 저극히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幕友의 위치에서 제시하는 改革案은 제도의 모순을 언급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은 곧 幕友의 전문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의 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

90) 繆全吉, 「清代幕府之官幕關係與幕席類別」, pp. 22~27.

91) 閔斗基, 前揭論文, p. 137.

92) 繆全吉, 「清代幕府之官幕關係與幕席類別」; Kenneth E. Folsom, *op. cit.*, p. 57.

93) 宮崎市定, 「清代의 胥吏와 幕友」(『東洋史研究』, 16·4, 1958) 參照.

94) Kenneth E. Folsom, *op. cit.*, p. 56.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節에서 살펴 본 漕運·鹽政·水利 등에 관한 魏源의 改革案이 吏治의 合理化라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붕괴위기에 있던 既存體裁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限界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지적할 것은 幕友의 전문인으로서의 기능은 通儒, 즉 全能을 이상으로 하는 儒家的 人間像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 結果에 있어서는 오히려 通儒의 官을 존재할 수 있게 한 補完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⁹⁵⁾ 즉 幕友의 기능은 보다 넓은 견지에서 보면 儒敎的 이상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幕友의 기능과 관련하여 본 魏源의 經世策도 궁극적으로는 유교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존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IV. 結 語

魏源의 經世思想和 經世策은 19세기 전반기에 있어서의 現實匡救라는 의도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우선 위기의 시대에 제기된 학문의 無用論을 극복하고자 實用的 입장에서 학문의 대상 및 방법을 숙고하였으며, 나아가서 經書에 대해서도 그것을 治術의 근거로 이해하여 文獻學的 考證을 통한 經書의 가치 확인에 급급하던 당시의 비역사적 경전관을 벗어나 經과 治, 즉 道와 現實 關係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魏源 思想의 實用的 性格과 經世致用的 精神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그의 思考의 유연성과 객관성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초를 제공해 준 것이 歷史認識이었다. 그는 '變'의 개념에 입각한 歷史認識을 바탕

95) 閔斗基, 前掲論文, pp. 165~166.

으로 모든 歷史現象, 歷史의 時代・制度・人物・思想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유교의 諸學派間의 대립과 긴장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포용 절충할 수 있었다. 또한 나아가서는 老子・墨子 등 유교 이외의 傳統思想에까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재평가와 절충을 中心으로 經世思想을 확충시켜 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魏源 思想의 근저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傳統의 맥락을 간파할 수 없었다. 우선 魏源 思想의 實用的 性格과 經世致用的 정신이 바로 修己治人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학문 및 사상의 사회・정치적인 의무에의 환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經世思想은 곧 ‘治國惠民’을 理想으로 하여 現實參與가 중시되어 온 儒家的 本領에 대한 재확인으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또한 老子・墨子 등의 전통사상에 대한 재평가와 그것의 經世思想으로의 수용은 유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代案이었다기 보다는 그 보완적 존재로서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교 內의 諸學派間의 긴장완화와 전통사상의 절충과 포용의 근저에는 그들이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道’, 즉 傳統文明의 本質에 대한 不變과 持續性으로의 인식이 전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곧 그의 經世思想이 유연성・객관성 등으로 그 進歩性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강고한 전통의 기초위에서 形成・擴充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살펴 본 漕運・鹽政・水利 등에 대한 魏源의 改革案은 위와 같은 思想을 배경으로 한 구체적인 經世策이었다. 이 改革案들은 곧 ‘法外之弊’의 제거, 制度의 簡易化 등을 中心으로 吏治의 合理化를 꾀하고자 한 것으로서 現實의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制度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그 制度의 當否를 묻고 改革에 기여한 것이었다기보다는 國家財政의 보호 또는 增額에 그 목적과 결과가 귀착되는 것이었으니 궁극적으로는 既存制度의 강화와 지속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魏源의 經世策이 안고 있는 이러한 限界는 기본적으로는 전통문명 자체에 대한 회의를 수반하지 못하였던 그의 思想的 限界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思想과는 별도로 幕友로서의 魏源과 그의 經世策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幕友의 위치가 經世策의 性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幕友는 通儒를 이상으로 하는 전통사회 內에서의 전문인으로서 가지는 적극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官과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官에 종속적이면서도 그들의 이해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신분적 한계를 전혀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幕友의 입장에서 제시된 魏源의 改革案은 吏治의 合理化라는 측면에서는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었으나 官이 주도하는 행정적 개선의 차원을 넘어 설 수 없는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체제 및 지배기구에 대한 강화로 귀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전문인으로서의 幕友의 모습은 通儒를 理想으로 하여 全能이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儒家의 人間像에 背馳되는 것이었으나 그의 전문지식으로 오히려 유교적 이상인 全能·通儒의 官을 보완하여 존재가능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魏源의 經世思想과 經世策은 전통문명, 특히 유교적 이념 및 제도에 대한 재확인과 강화의 측면이 매우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限界가 그의 思想 및 역할의 진보적·근대적 의의를 전혀 무의미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곧 ‘經世’가 비록 유교적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현실의 제도와 시책에 바탕하여 그 匡救를 의도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에 전적으로 구애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나아가서 유교로부터 遊離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⁶⁾ 그러므로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魏源의 經世思想은 그 자체 內에 이미 스스로의 전통

96) 全海宗, 「實學概念의 史的 考察」, p. 116.

을 변질시킬 요소까지도 지니고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傳統의 해체에 있어서 新中國을 건설하려는 과정 가운데 전통문명 자체에 대하여 그 근대적 의미를 묻고 극복하려는 자세야말로 向後的 中國社會의 成敗를 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英文要約〉

A Study on Wei Yüan's Reformism and Its Limits

Sung, Hye-young

Wei Yüan deserves our attention as a mirror of the changes confronting the society of the early 19th century China: not only in his role as a leading scholar but as an expert in statecraft. Up to this time, most of the studies have a tendency to exaggerat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western impact and his reformism.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supplement these one-directional understanding and to re-establish the proper position of Wei Yüan's reformism mainly in connection with the inner dynamics of the Chinese tradition.

Wei Yüan was a representative of the "statecraft" or reformist group of the early 19th century. He criticized the main stream of the Ch'ing scholarship which had lacked socio-political practicality. It is with this practical value that he approached the Confucian classics from which he searched for the background for handling the worldly concerns. These efforts fundamentally based on Confucian ideology, "cultivating self and governing people" 修己治人, especially on "governing people" 治人, which means "statesmanship and utility" 經世致用 in the expression of the 19th century.

Wei Yüan's concern was extended from this Confucian ideology to the other traditional thoughts such as Mo-tzu and Lao-tzu, Chuang-tzu, all of which were to be infused in the name of *Ching-shih* 經世. But to Wei, the Tao 道 which is the essence of Chinese civilization was unchangeable and lasting, despite that the human events ceaselessly change and the Tao was inseparable from these worldly concerns. Therefore his reformism, the utilitarian response to ever-changing

human problems, would be restricted by this concept of Tao.

Wei Yüan's reform proposals on the tribute grain transport, the water administration and the salt monopoly were focused on the elimination of unlawful or illegal corruption and resulted in the rationalization or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But these were not enough to reform the law and institution fundamentally. These deficiencies were characterized by his role as a *mu-yu* 幕友 as well as the limits of his ideology.

The *mu-yu* were the private secretaries who were recruited on a personal and unofficial basis by the provincial officials. As an adviser, the *mu-yu* was expected to give moral as well as technical advices. Especially, he supplied their patrons with the professional knowledges they needed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governing. Such dependent relationship of the *mu-yu* to his patron seemed to restrict his role and activity in some sense. Moreover, it is noticeable that the *mu-yu*, the statecraft expert in general, supplemented and enabled the officials continue to be Confucian generalists or amateurs. Wei Yüan's reform-proposals also c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As a consequence of all these considerations the following could be concluded. Wei Yüan's reformism was fundamentally aimed at the changes for new society. His reformism, however, had some ideological deficiencies from the setting on by the fact that his framework of thought was based on the Chinese tradition. And his reformism concentered through the *mu-yu* was also ultimately within and for the Chinese traditional institute and values.